

선 놀린 시범경기 첫 선 '합격점'

5이닝 소화 74구 4피안타
3회 아쉬운 수비로 3실점
김도영·김석환 나란히 2루타
KIA, 두산에 4-6 패배

KIA 타이거즈 새 외국인 투수 선 놀린이 시범 경기에서 첫선을 보였다.

놀린은 21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두산베어스와의 시범경기를 통해 본격적인 KBO리그 데뷔 준비에 나섰다.

이날 선발로 나온 놀린은 5이닝을 소화하면서 4피안타 1볼넷 5탈삼진 3실점을 기록했다. 74개의 공을 던졌고, 이 중 52개를 스트라이크존으로 집어넣었다.

직구는 32개를 던졌고 최고 스피드는 145km, 평균속은 142km를 기록했다.

포커터(2개·135~138km), 커브(11개·111~124km), 슬라이더(14개·121~133km), 체인지업(15개·127~131km) 등도 테스트했다.

출발은 깔끔했다.

첫 타자 허경민을 3구째 좌익수 플라이로 잡은 놀린이 정수빈과 페르난데스를 각각 2루 땅볼과 유격수 땅볼로 처리했다. 2회에는 김재환, 강진성, 강승호의 방망이를 헛뜰게 하면서 'KKK'를 찍었다.

하지만 3회 아쉬운 수비와 함께 놀린이 3실점을 기록했다.

놀린이 첫 타자 김재환을 우전 안타로 내보냈다. 박세혁과 박계범을 각각 좌익수 플라이와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우면서 투 아웃은 만들었지만 허경민에게 우전안타를 맞으면서 2사 1·2루가 됐다.

이어 정수빈의 타구가 좌측으로 높게 뜨면서 실점 없이 이닝이 마무리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좌익수 고종욱이 낙구 지점을 놓치면서 2타점 2루타

가 기록됐다.

페르난데스의 중전안타까지 이어지면서 놀린의 실점이 올라갔다.

놀린은 김재환을 중견수 플라이로 잡으면서 3회를 마무리한 뒤 4회는 다시 삼자범퇴로 정리했다. 5회에는 선두타자 박세혁을 몸에 맞는 볼로 내보냈지만 후속타자를 모두 범타로 돌려세우고 시범경기 첫 등판을 끝냈다.

아쉬운 3회가 있었지만 오랜만의 실전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합격점을 줄 만한 피칭이었다.

지난 9일 한화와의 연습경기를 통해 첫 실전에 나선 놀린은 코로나19 여파로 이날 12일 만에 마운드에 올랐다.

한편 KIA는 이날 경기에서 4-6패를 기록했지만, '슈퍼루키' 김도영과 '차세대 거포' 김석환이 2루타로 타점을 수확하면서 박수를 받았다.

김도영은 0-3으로 뒤진 3회말 파워를 보여줬다.

톱타자 겸 유격수로 선발 출장한 김도영은 첫 타석에서 두산 외국인 투수 스타에게 6구째 헛스윙 삼진을 당했지만, 2사 1루에서 맞은 두 번째 타석에서는 2루타를 만들었다.

김태진의 도루로 만들어진 2사 2루, 김도영이 잡아당긴 공이 예상보다 멀리 뻗어 나가면서 좌익수 키를 넘겼다.

그 사이 김태진이 홈에 들어오면서 타점이 기록됐고, 김도영은 2루까지 향했다.

그리고 3-6으로 뒤진 9회말에는 김석환이 타점을 올리는 2루타를 장식했다.

6번 타자 겸 1루수로 선발 출장한 김석환은 앞선 타석에서는 안타 없이 몸에 맞는 볼 하나만 기록했지만, 9회 마지막 타석에서 안타를 만들어냈다.

2사 1루에서 타석에 선 김석환은 좌측으로 공을 보내면서 2루까지 향했고, 1루에 있던 김호영이 홈에 들어오면서 이번 시범경기 4번째 타점을 올렸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21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시범경기 두산과 KIA 타이거즈의 경기에서 놀린이 투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출신 안세영 전영오픈 은메달

배드민턴 여자 단식 0-2 패배

광주출신 한국 여자 배드민턴의 에이스 안세영(20·삼성생명)이 전영오픈 결승전에서 '숙적' 야마구치 아카네(일본)에 패해 준우승했다.

안세영은 20일(한국시간) 영국 버밍엄에서 열린 2022 전영오픈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야마구치에게 0-2(15-21 15-21)로 패했다.

1996년 대회 이후 26년 만에 한국 선수의 전영오픈 여자 단식 우승을 노렸던 안세영의 도전은 우승 문턱에서 좌절됐다.

한국은 전영오픈 여자 단식에서 1981년 황선애, 1986년 김연자, 1996년 방수현이 우승을 차지했다.

안세영의 결승전 패배로 2017년 여자복식 장예나-이소희가 우승한 뒤 5년 만의 종목 우승에 나섰던 한국 대표팀의 도전도 다음 대회로 미뤄졌다.

이날 경기 패배로 안세영은 숙적 야마구치와의 상대 전적에서 최근 3연패를 당하며 4승 7패로 밀렸다.

안세영과 야마구치는 2019년 프랑스오픈 선수권대회에서 처음 맞대결했다.

당시 대회에선 안세영이 준결승전에서 야마구치를 2-0으로 꺾고 결승에 오른 뒤 대회 첫 우승을 차지했다.

이후 야마구치에 3승 4패로 뒤지던 안세영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마스터스 배드민턴선수권대회 결승전에서 야마구치를 2-0으로 제압하며 우승컵을 들어 올리고 상대 전적 균형을 맞췄다.

하지만 안세영은 이후 열린 2021 BWF 월드투어 파이널과 2021 세계개인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서 야마구치에게 연달아 패했고, 배드민턴 최고 권위 대회인 전영오픈 결승에서 펼쳐진 11번째 맞대결에서도 끝내 고개를 떨궜다.

/연합뉴스

손흥민 멀티골 ... EPL 득점 2위



21일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홉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30라운드 경기에서 후반 43분 토트넘의 손흥민이 웨스트햄을 상대로 팀의 세 번째 득점을 올린 뒤 두 주먹을 불끈 쥐는 골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토트넘 3-1 승리 5위 도약
케인과 38·39번째 합작골
시즌 공식전 14골 6도움 기록

손흥민(30)이 시즌 첫 멀티골을 터트리며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홉스퍼에 기분 좋은 승리를 안겼다.

손흥민은 21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홉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 2021-2022 EPL 30라운드 홈 경기에서 전반 24분과 후반 43분 두 골을 기록해 팀의 3-1 승리에 앞장섰다.

이번 시즌 손흥민이 한 경기에서 두 골 이상을 넣은 건 이날이 처음이다.

리그 12호, 13호 골을 연달아 터트린 그는 디오구 조타(리버풀)와 EPL 득점 공동 2위로 올라섰다.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 콘퍼런스리그(1골 1도움)를 더하면 손흥민은 올 시즌 공식전에선 모두 14골 6도움을 기록 중이다.

또 손흥민은 '단짝' 해리 케인의 도움을 받아 멀티골을 터트렸다.

이미 EPL 통산 최다 골 합작 기록을 가지고 있는 손흥민-케인 듀오는 이로써 38번째, 39번째 골을 합작하며 자신들의 기록을 새로 썼다.

토트넘은 전반 9분 만에 행운의 상대 자책골로 리드를 잡았다.

케인이 페널티 지역 오른쪽에서 손흥민을 향해 내준 패스가 웨스트햄 커트 주마를 맞고 득점으로 이어졌다.

2분 뒤에는 손흥민이 콜루세브스키의 패스를 받

아 오른발 슛을 시도한 게 골대를 맞고 나와 추가골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집중력을 보인 손흥민은 결국 추가 골을 만들어냈다. 전반 24분 케인의 침투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페널티 지역 왼쪽으로 쇄도한 뒤 왼발 슛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쉽게 나오지 않던 골은 후반 43분에도 나왔다. 이번에도 역시 해결사는 손흥민이었다.

토트넘 골키퍼 위고 요리스의 골킥을 케인이 머리로 패스했고, 이를 받은 손흥민이 재빠르게 돌파해 오른발 슛을 골대에 꽂아 넣었다.

골 감각을 과시한 손흥민은 이제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에 합류해 이란(24일), 아랍에미리트(29일)와의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9, 10차전을 준비한다.

/연합뉴스

우상혁 높이뛰기 첫 세계대회 금



우상혁이 20일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스타크 아레나에서 열린 2022 세계실내육상선수권대회 남자 높이뛰기 결승에서 우승한 뒤 태극기를 들고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 세계실내육상선수권
결선에서 2m34 뛰어 넘어

'스마일 점퍼' 우상혁(26·국군체육부대)이 한국 육상 역사에 길이 빛날 이정표를 세웠다. 우상혁은 20일(한국시간)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스타크 아레나에서 열린 2022 세계실내육상선수권대회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2m34를 뛰어 우승했다.

이번 대회에 출전한 12명 중 유일하게 2m34를 통과해 금메달을 확보한 우상혁은 자신이 보유한 한국 기록(2m36) 보다 높은 2m37에 도전했다. 우상혁은 1, 2차 시기에서 바를 건드린 뒤, 3차 시기 도전은 포기했다.

군인 신분인 우상혁은 특유의 거수경례 세리머니로 경기 종료 후 알리고, 손흥민(토트넘)의 '기

념사전' 세리머니도 펼쳤다.

한국 신기록 달성에는 실패했지만, 스타크 아레나를 찾은 모든 관중의 박수를 받으며 '세계 챔피언' 등극의 기쁨을 만끽했다.

우상혁은 경쾌하게 바를 넘었다. 참가 선수 12명 중 유일하게 2m15를 건넌 우상혁은 2m20와 2m24, 2m28을 1차 시기에 통과했다.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2m28까지 넘어선 선수는 우상혁과 로이키 기슈(스위스), 두 명 뿐이었다.

우상혁은 2m31 1, 2차 시기에서는 바를 건드렸지만, 그러나 3차 시기에서 압박감을 이겨내고 2m31을 넘었다. 우상혁은 팔짱을 끼며 멈춰 있는 바를 바라보는 세리머니를 펼쳤다.

다시 기세를 올린 우상혁은 2m34를 1차 시기에 넘었고, 포효했다.

/연합뉴스